

고공데이터베이스 功過



홍용표
한국통신 하이텔사업국장

1. 공공데이터베이스사업, 그 의미와 가치들

공공데이터베이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목적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많은 국민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기반 산업분야로써,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 없이는 정보화의 촉진은 물론이고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도 추진키 어렵다고 인식되었다.

이와같은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은 고도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며, 경제·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정보주권을 확립하는 자원으로써의 역할이 지대하며, 정보자원의 공유로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아 시장이 협소하여 민간의 사업참여가 활발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산업중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역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를 기피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가치의 인정 및 보호가 미흡할 뿐만아니라 재산가치 평가기준이 없어 영세한 데이터베이스 사업자가 이를 담보로한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따라, 유치단계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전략적 추진 분야중의 하나



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데이터베이스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즉 정부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공정보를 공개촉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역할은 민간의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를 적극참여시킴으로써 국가 사회 및 산업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킬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예는 선진외국들의 데이터베이스산업 정책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생산국인 미국도 전세계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의 50%를 보유하고 있지만, 1950년대 초기에는 정부 등 공공부분이 주도한 후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였고, 아울러 관련제도의 정비, 자금 등의 지원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서구 유럽은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미국의 1/3 수준이나 프랑스, 영국, 서독 등을 중심으로 정부기관을 통한 주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웃나라 일본 역시 '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데이터베이스 진흥 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에 비해 10년여 뒤진 데이터베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의 보유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과, 관련법·제도정비, 금융·세제지원 등 사업 환경조성에도 주력하였다.

통신망사업자인 한국통신으로서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킬 다른 이유가 더 있었다. 다시말하면, 데이터베이스 유통의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기간통신자로서 정보유통으로 인한 유발 트래픽이 통신망 이용율을 높여 풍부한 통신하부구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예는 세계에서 정보대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1980년 1가구 1전화 계획을 성공리에 마친 프랑스 텔레콤은 데이터베이스산업을 국가주도적 정책으로 추진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무려 24,600여종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통신 트래픽 유발이 월간 1,150만 시간을 상회하고 있음을 볼때, 통신사업자 주도하에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데이터베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통신사업자 목적의 다른 면모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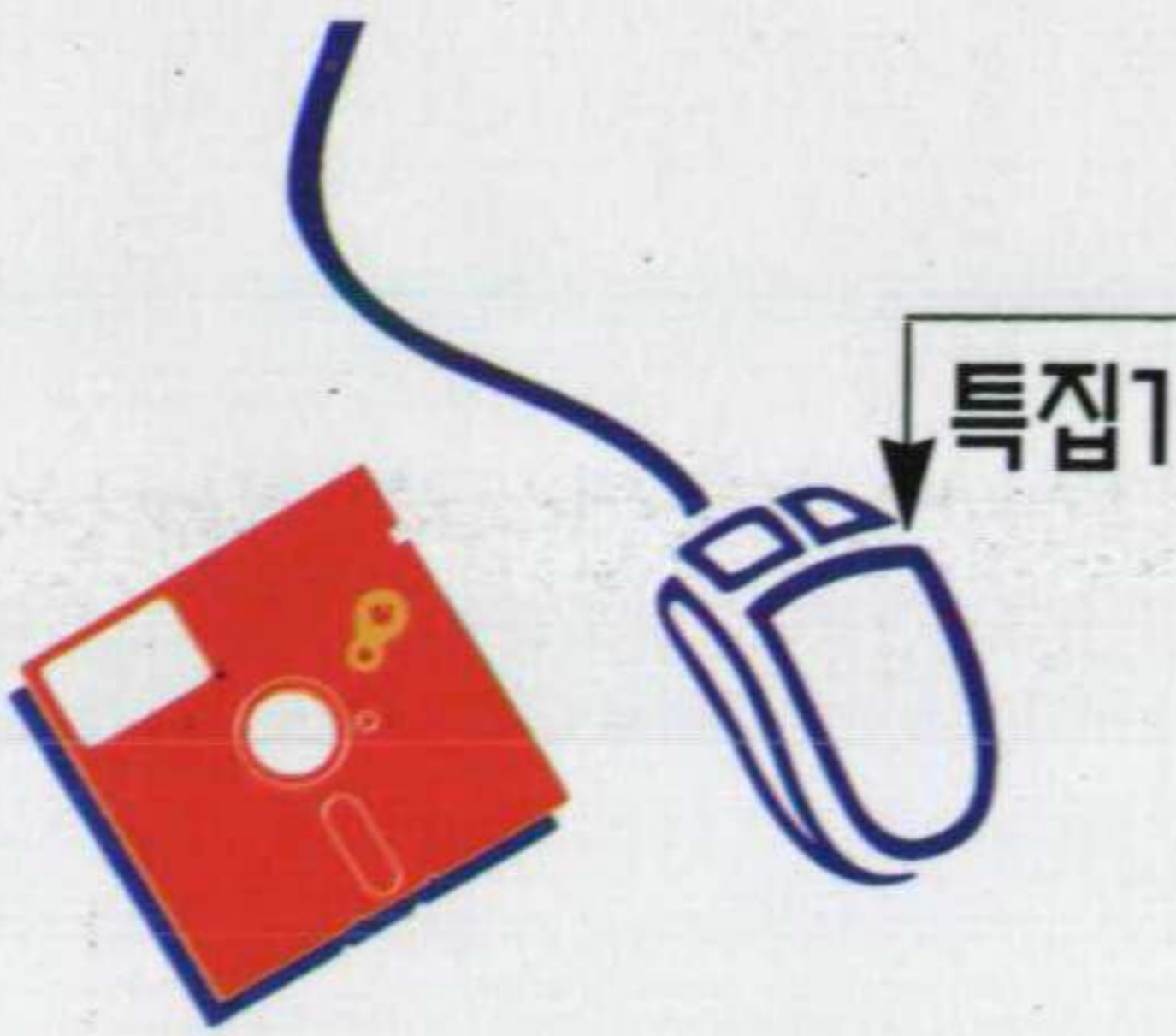
2. 2년간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을 돌이켜 보면

한국통신이 중심이 되어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사업이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탄생한 본 사업은 1994년 부터 1997년 까지 4년간에 걸쳐 매년 200억원씩 총 800억원을 투입하여 400여종의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이에따라 본 사업의 개시년도인 1994년에는 48개회사가 개발업체로 참여하여 총 72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었다. 48개 개발업체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24개사는 정보 제공업체이었고 나머지 24개사는 S/W 개발회사이었다. 그후 2차년도인 1995년에는 개발업체가 다소 증가한 52개업체에 70종의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과제가 최종 확정되었고, 현재 개발중에 있는데, 이중 정보제공업체가 41개사, S/W 개발업체가 11개사로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자는 정보제공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제공업체가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자로 다수 참여하는 것은 자료의 수집, 가공면에서는 우수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수는 있겠으나,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S/W개발 프로젝트 관리 등의 취약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의 추진과정을 돌이켜 볼때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사업은 사실 우리나라의 미약하기만한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에 붓물을 터트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업을 계획하는



쪽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개발하는 민간업체측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보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해야 될 정보의 사전고려가 부족하여, 이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긴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느 규모로 개발 보급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한 원시정보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이용자인 국민은 그 정보를 얻거나 이용하기를 기실 원하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조감하여 보면, 아직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정보제공자, 데이터베이스 유통 업체간에 전문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겸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은 전문업체에서 시행하기보다는,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부수적인 사업으로, 또는 In-house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 현 실태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사업에 비전문업체가 대거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인식부족, 개발능력 부족으로 인한 하도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정 기준 등 기술용역 대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검색표준어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고, 매년 100여개에 상당하는 소형 데이터베이스 개발로 인하여 본 사업이 이상과열로 치달아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직시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질적수준의 저하를 관리할 여력이 미천하는 등 자못 심각한 문제점까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3. 공공데이터베이스사업, 발전을 기대하며 제시되는 관점들

지난 2년간의 추진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양적인 팽창은 더할 나위없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150여종에 이르는 공공정보 부분은 질적인 면에서도 향후 계속되는 운영 내실화 과정에서, 부족되는 부분은 충실을 기하여 데이터의 축적과 확대 개발의 추진으로 현재보다는 보강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임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향후에는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그 필요성 면에서 전제되는 3가지의 요건을 확연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가 국제화 시각이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하물며 한 국가의 문화가 응결되어 있고 사회가 숨쉬는 정신적, 경쟁적 보고인 데이터베이스는 국제화 시각에서 계획되지 않으면, 그 존재가치는 단편성이 되고 말것이다. 최근에 들어 수만개의 국제 네트워크와 수백만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창궐,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네트워크의 출항 등은 정보의 세계화, 국제화를 앞당겨 왔다.

따라서 향후 국제화 전략상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데이터베이스가 산업체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서비스중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도 전문 데이터베이스라기 보다는 증권시세나 물가시세 등 단순정보의 취득이나, 오락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 트래픽으로 보면 채팅이나 BBS 등 오락성 PC통신서비스가 전체의 80-9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고객이 개인 개인이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공공정보를 이용하게 될 국민 한사람 한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현황자료, 가공정보, 분석된전략 등의 산업에 긴요한, 따라서 그 미치는 인과가 지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된다 하겠다.

세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에 비해 그 성공여부가 불분명하여 개발투자에 모험이 따르는 경우, 과감하게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부분은 정보의 부분도 해당되지만, 데이터베이스 기술, 표준S/W 등도 포함된다 하겠으며, 민간으로서는 성공여부가 불분명하여 참여키 어려워 공공데이터베이스 자금이 참여치 않을 경우 결국 국가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낙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4. 공공데이터베이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면

전문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향후 공공데이터베이스가 그 요구되는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남은 2년차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은 그 추진방법을 다소 전환하게 될 것 같다. 먼저, 현재까지 소형 데이터베이스를 탈피하고 대형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가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대형이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먼저 그 규모에 있어서 현재 추진중인 소형의 10여배의 규모가 예상되며, 개발자 요건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전문 중견업체가 중심이 되어 전문IP, 데이터베이스 편집업체, 제작업체 등 다수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기간에 있어서, 실 개발기간은 2년으로 기초구축을 하고 이후 2년간 운영을 하면서 확대개발을 계속하여 총 4년간 개발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형 데이터베이스에 걸맞는

S/W의 표준화, 각종 명령어의 표준화 등을 통해 명실공히 우리의 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데이터베이스로 국제경쟁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한다.

이러한 확연한 의지는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을 계획하는 정부나 한국통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개발에 참여하는 관련업체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하겠다. 즉, 정보는 결코 일회성의 소모품이 아니며, 정보는 또한 시간성이 강하여 정보의 현행화 작업이 생명이며, 정보는 유용성과 신뢰성, 간결성, 충분성, 일관성, 표현성 등 팔방의 요건을 갖추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품질이 우수한 공공데이터베이스가 되어 고객만족이 되는, 다시말하면 고객 불만요소를 제거하고 고객만족 요소를 개선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고 운용될 수 있었으면 바램이다.

또한 원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어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만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보다 능동적으로 정보의 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WTO 체제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즉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시각각으로 생성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비공개 원칙의 포괄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기준, 제한한 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부나 국민적 이익을 추구해주기를 바란다.

분명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은 이나라 정보 통신중의 핵심적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공공정보를 공개 촉진하여 국가사회 및 산업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